

서울만물전과 해방공간의 한국건축

새 시대의 희망을 그리다

글, 자료, 김현섭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947년의 서울만물전 현상설계 공모는 여러모로 주목할 만하다. 백화점을 뜻하는 '만물전'이라는 말 자체가 도드라지기도 하거나 여기에 당선된 한국인 건축가들의 디자인이 하나같이 모던(modern)한 산뜻함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의 우리 건축이 식민체제의 암울함 속에 놓여 있었다면, 해방공간의 건축가들은 이제 새 시대의 희망을 그릴 수 있게 됐다. 물론 아직 식민의 그림자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예기치 않은 분단의 상황과 이념의 혼재 속에 미군정 시기를 거쳐야 했으며, 모던한 디자인에도 어눌함이 감돌았지만 말이다.

《조선건축》과 해방공간 한국 건축계의 움직임
해방 후의 한반도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건축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뜻깊은 움직임이 없지 않았다.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 1일의 조선건축기술단(단장 김세연, 1947년 4월부터 조선건축기술협회, 현 대한건축학회의 전신) 설립이 대표적이다. 당대 한반도의 주도적 건축인들은 이 모임을 통해 건축 제반의 발전을 꾀했는데, 1947년 3월부터는 기관지이자 이 시기 유일한 건축 전문지였던 《조선건축》을 발행했고 1949년 5월까지 총 9호를 냈다.¹ 우리는 여기서 해당 단체 및 당시 한국 건축계의 상황을 고스란히 접하게 된다.

1 이 단체와 기관지는 일제강점기의 조선건축회(朝鮮建築會)와 그 기관지 《조선과 건축(朝鮮&建築)》을 연상시킨다. 실제로 조선건축기술단은 조선건축회를 인수하며 출범했다. 그럼에도 두 단체의 성격이 다르다고 송룡은 말한다. 그의 『한국근대건축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서울대 박사논문, 1993)와 안창모의 『한국 현대 건축 50년』(재민, 1996)을 보라. 한편, 《조선건축》에 대해서는 조경재가 『조선건축』에 나타나는 1940년대 후반 한국건축의 성격(연세대 석사논문, 1997)에서 디문 바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과 대한건축학회(www.aik.or.kr)에서 『조선건축』 원문을 볼 수 있다.

돌이켜 보건대, 《조선건축》은 열악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건축인들이 분투한 것에 대한 생생한 기록에 다름 아니다. 당면한 건축계의 진로, 한국의 건축사(史)와 세계건축의 동향, 주택문제, 건축구조·재료·시공 및 행정·제도의 개선, 건축술어 제정 이슈 등이 이 잡지에서 논의됐고, 몇몇 공모전 및 실제 지어진 건축물의 정보도 담았다. 서울만물전 당선작도 여기에 실린 것이었다(2권 1집 신년호, 1947.12.), 모두 네 건의 설계안이다.

그러나 그간 서울만물전 못지않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눈길을 끌었던 것은 국민주택 현상설계다. 1945년 11월 공고하고 이듬해 3월 당선작을 선정해 중앙백화점(옛 조지아 백화점) 화랑에서 전람회(1946.3.21.~26.)를 개최했던 이 공모전은 《조선건축》 창간호가 다루기도 했고, 우리 현실의 시급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조선건축기술단이 주최하고 조선주택영단과 도시계획연구회(이천승)가 후원한 이 공모전 당선작의 일부(20평 이종원 안, 15평 천호철 안)는 미군정 조선민주택행정처(중앙주택관리처)가 1947년 350~400호 가량 건설한 주택 평면의 바탕이 됐던 것 같다.² 이때의 설계는 주택영단이 맡았는데, 평면도를 포함한 건축개요가 그해 말의 《조선건축》에 실렸다. 서울만물전이 게재된 호다. 입선안들을 보면 대체로 서양의 입식 생활 지향, 온돌방 같은 전통 공간 수용, 집중식 평면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던 주택개량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해방 전후 건축의 단절 문제를 풀 실마리를 내포한 셈이다.

2 유인하·김현섭, 『미군정기 전재민(戰災民) 주택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0권 8호 (20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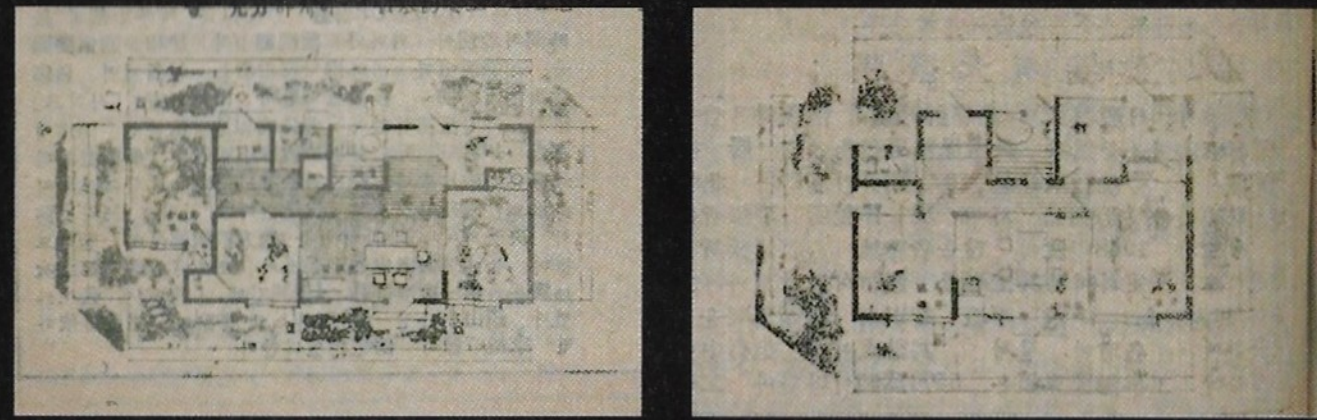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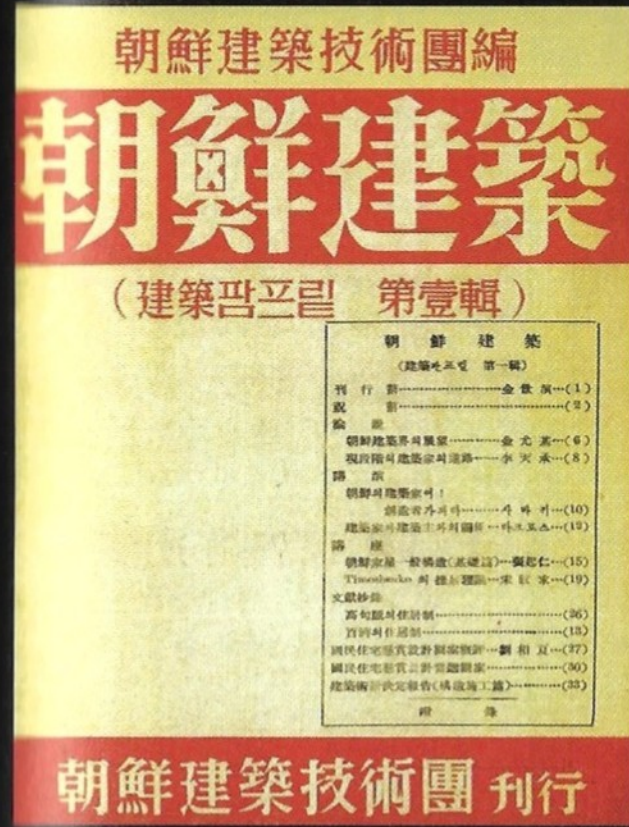
국민주택과 서울만물전 공모전은 공히 한국인 건축가들이 본격적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계획안을 냈다는 점에서도 주시해야 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더욱이 매우 모던한 디자인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오영섭의 동도극장(1947~48)도 뜻깊다. 성북경찰서(1947)의 경우 사다리꼴과 반원형이 병치된 평면 디자인이 독특한데, 설계자를 '수도관구 경찰청 건축과'로 기록하고 있다. 동도극장과 성북경찰서도 서울만물전이 실린 호의 《조선건축》에 게재됐다.³

‘서울만물전’ 현상설계(1947) 당선작
그렇다면 서울만물전의 당선작들은 어떠한가? 팔목할 만한 디자인에 비해 그 고찰은 희소해 보인다. 1978년 윤일주가 『한국현대미술사(건축)』에서 간략히 서술한 것이 기초가 됐지만 이를 다룬 이후의 문헌은 여기서 그다지 더 나아가지 못했다.⁴ 건물이 실현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건축》에 출판된 설계도면 외에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일 텐데, 그 도면조차도 불명료한 부분이 많다. 당선 건축가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은 점 또한 이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공간의 건축과 관련해 이 정도의 도면이 출판된 것은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크며, 더 큰 관심을 요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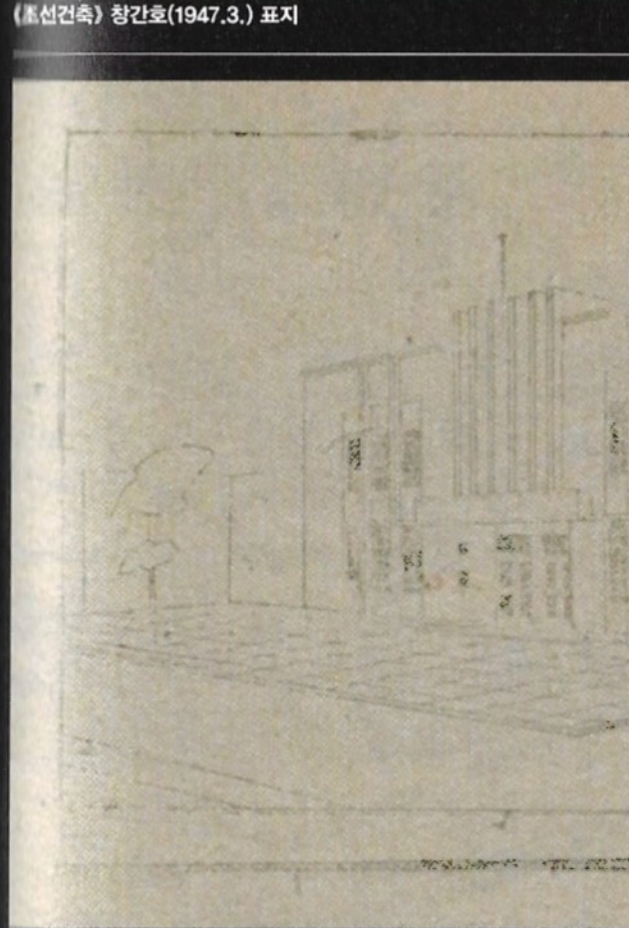
윤일주는 서울만물전 설계공모가 1947년

3 이밖에도 《조선건축》에는 여러 건의 공사개요가 실렸지만 개인 건축가의 작업은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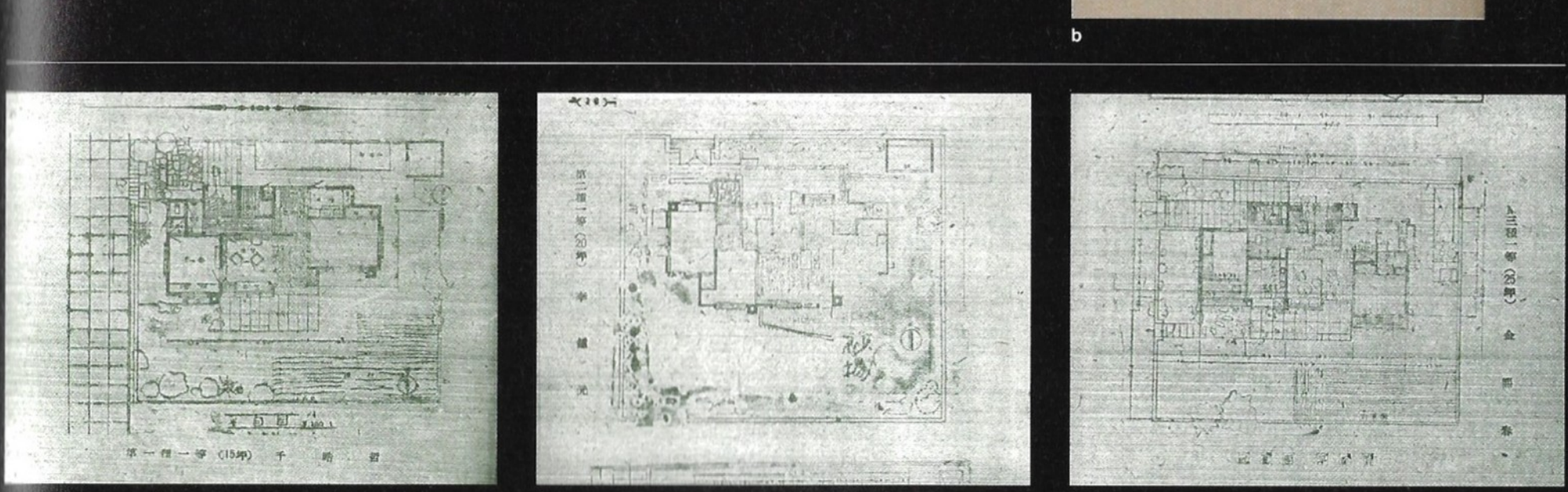
4 김옥성의 『1945년부터 1955년까지 한국건축계 형성기 성격에 관한 연구』(명지대 석사논문, 1991)는 당선작 평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점에서 의미 있지만, 안창모(안)의 책, 1996)와 조경재(안)의 논문, 1997)는 윤일주(1978)의 내용을 반복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면서 공모전 당선작들에 대한 윤일주의 논평을 박동진의 것으로 오인하기도 했다.



조선민주택행정처 건설 주택 평면, 조선주택영단 설계: a. 갑호(20평); b. 을호(15평) [출처: 《조선건축》, 1947.12.]



오영섭, 동도극장, 1947~48, 서울 동대문구 문암동: a. 외부 투시도; b. 1~2층 평면도 [출처: 《조선건축》, 1947.12.]



국민주택 현상설계 공모전(1945.11.~1946.3.) 중별 1등 당선작: a. 1등(15평) 천호철; b. 2등(20평) 이종원; c. 3등(25평) 김희춘 [출처: 《조선건축》, 1947.3.]

9월에 있었고, 10월 2일 결과가 발표됐다는 사실, 그리고 건물 위치는 충무로 1가의 나중에 지어질 대연각호텔⁵ 자리였다는 사실 등 유용한 정보를 전했다. 그러나 그전의 배경에 대해서는 침묵하는데, 공모전 즈음의 일간지 등을 살펴보면 배경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혼마치(本町, 지금의 충무로) 입구의 히라타(平田) 백화점이 1946년 2월 '서울만물전(사장 윤혁제)'으로 재개점 했다는 것이다. 몇몇 광고를 보면 건물 두 개 층에 '백화점'에 걸맞은 다양한 매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점 1년여가 지난 1947년 3월, 이 건물은 화재로 전소된다. 반 년 뒤 같은 자리에 '서울만물전'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설계공모를 진행해야 했던 이유다. 설계요강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선건축》에 출판된 당선작 도면을 통해 그 일부를 파악할 만하다. 백화점이면서도 극장 기능이 가장 크게 요구됐다는 사실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건축주는 서울 변화기에 세워질 이 상업-문화 복합시설에 매우 현대적인 디자인을 요구했으리라 생각되며, 건축가들은 이에 적극 호응했던 것이다.

공모전 1등 당선자는 김태식, 2등은 강명구+박조유+한선유, 3등 1석은 성낙천+이희태, 3등 2석은 오영섭이었다. 각 당선작은 1층 평면도와 함께 한두 컷의 입면도 혹은 외부 투시도를 넣었다. 모두 3층 규모의 평지방 건물을 그리고 있는데, 1층 평면도에서는 백화점 매장과 극장 영역을 구분하며 외부에서의 진출입 동선도 분리하고자 하는 (그러면서도 적절히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입면에서는 대체로, 분절된 매스의 윤곽 속에, 창과 멀리인 디자인이 수평선이나 수직선을 반복하며 모던한 분위기를 한껏 자아냈다. 김태식의 1등 당선작이 다른 안들과 차별화된 점은 부채꼴의 극장 내 자리 배치뿐만 아니라 백화점 매대의 레이아웃 등 디테일을 가장 성실히 그려 넣은 데에 있지 않나 싶다. 이와 별개로 백화점 전실의 계단 형태를 살짝 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움직임을 고려한 점도 눈에 띄는데, 반대편에는 반원형 참이 있는 계단실을 뒀다. 다만 입면도와 평면도의 스케일이 잘 맞지 않아 좀 혼동되며, 특히 후면의 입면도는 반원형 계단실과 출입구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뒤집혀 실렸음이

분명하다. 《조선건축》 편집자들의 오류로 생각된다.

2등 강명구 등의 안은 평면과 입면의 스케일이 상용할 뿐만 아니라 평면도에 방위표가 있고, 두 입면도에도 남(S)과 북(N)을 표기해 이해가 용이하다. 히라타 백화점이 혼마치 거리를 북쪽으로 면했었으니 여기서도 북측 입면이 정면일 것이다. 이 디자인에서는 양쪽 입면의 돌출임이 특징적인데, 서구의 모더니즘이 절정을 지나던 1930년대 초부터 몇몇 선구자들이 평활한 외벽면에서 서서히 탈피해갔던 사실을 연상시킨다.⁶ 배면의 곡선형 캐노피도 그 같은 이완의 뉘앙스를 담았다. 3등 성낙천과 이희태의 안은 촘촘히 규칙적으로 배열된 입면의 수직 멀리안이 인상적이며, 오영섭의 안은 외부 투시도가 입면도를 대체한 점이 특징이다. 오영섭의 여타 투시도도 《조선건축》에 출판된 것을 생각하면(창간호 등 '오공무소' 광고의 한옥 연립주택 투시도 및 전술했던 동도극장의 투시도), 그는 당시 드로잉에 가장 능했던 건축가였을 법하다.

한국 현대건축 초기의 낭만적 모더니즘 윤일주는 당선작들이 "오늘날[1970년대 후반]에 있어서도 과히 낡지 않은 합리주의적 경향의 아담한 작품들"이라 평하며, 이 건축가들을 "일제 시의 가장 젊은 세대로서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 초반에 걸친 합리주의 내지 국제주의적인 경향의 물결에 다소나마 젖었던 세대"라 여겼다. 그의 논평 역시도 "과히 낡지 않은" 것이지만 꽤 "아담한" 측면이 큰데, 지금에 와 보건대 이 작품들은 상당한 낭만성을 내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원래 '낭만'이라는 말은 '고전에 대비되며 아카데미즘과 이성에 반한 개인의 주관성과 감흥을 지시한다. 딱 짜인 규범으로부터 탈피해 창작의 자유를 지향하는 속성이다.

하지만 서울만물전 당선작들에 대해 말하는 낭만성은, 그런 속성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아직 규범이 정립되지 전의 느슨한 속성에 가깝다. 이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으로도 볼 수 있는데, 당시의 우리 건축가들은 서구 모더니즘을 모본 삼아 지향했지만 그것을 정교하게 표현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던 게 사실이다. 더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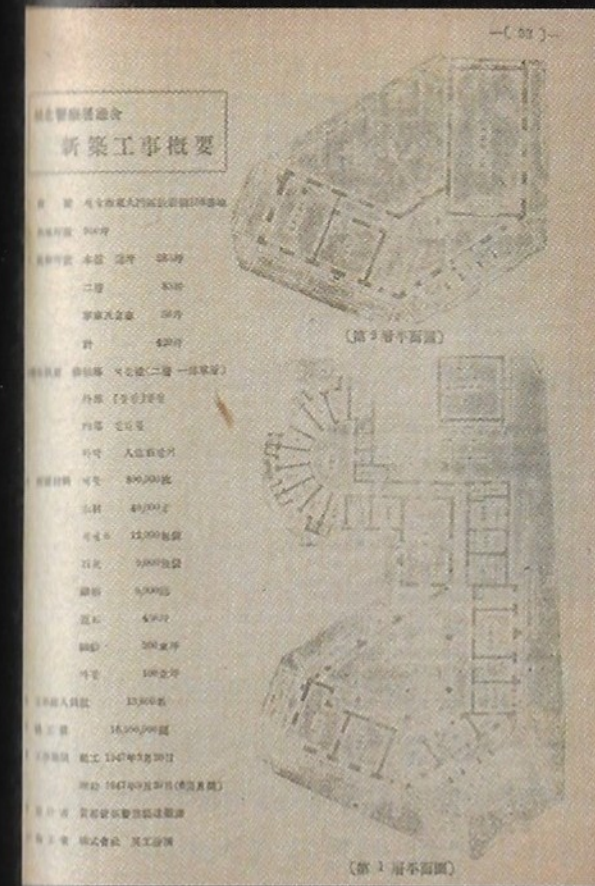
이들의 모던한 디자인을 해방 직후의 한국에서 구현하기에는 건축생산 인프라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불비했다. 즉, 현실의 시스템이 뒷받침하지 않음(을 반쯤 인지함)에도 이상을 향해 나라를 떨칠 때 드러나는 어눌한 맛의 감성이 그 낭만성이라 하겠다. 이런 낭만성은 짐짓 영성하지만 나름의 품미가 있고, 또 그만큼 빈틈을 채울 수 있다는 희망을 함의하기에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규범을 어서 따라잡고, 또 그를 넘어선 자유를 갈구하고자 하는 희망 말이다. 이 같은 낭만적 모더니즘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950~60년대에 걸쳐서도 지속되는 것 같다. 한국 현대건축 초기의 중요한 일면이다.

한편, 서울만물전의 건축가들은 대개 만 30세 이하의 젊은이들이었는데(김태식 1917년생, 강명구 1917년생, 성낙천 1921년생, 이희태 1925년생 등),⁷ 인물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각각의 활동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단적인 예지만 김태식의 당선작 프로필 "조선건축기술협회 이사, 조선건축사협회 위원장, 김태식건축사무소 경영"이 흥미로운 한편으로, 윤일주도 적시한 그의 「건축사를 논함」(《조선건축》, 1947.8.)이라는 글의 건축가와 건축사 개념은 여전히 반추할 여지가 크다.

[편집자 주]

이번 호부터 5년간 총 25회에 걸쳐 건축역사학자이자, 건축비평가로 활약이 큰 김현섭 교수가 집필하는 '한국 현대건축의 재조명'을 연재한다. 해방공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건축사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작업을 추적하며, 그 가치를 살펴보고 동시에, 세계건축의 동향 속에서 한국건축이 취해야 할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크다.

7 한국건축가협회 편, 『한국의 현대건축-건축가』(기문당, 2000).



수도권 구경형 건축과, 성북경찰서, 1947. 서울 동대문구 돈암동: 아래, 1층 평면도; 위, 2층 평면도 [출처: 《조선건축》, 194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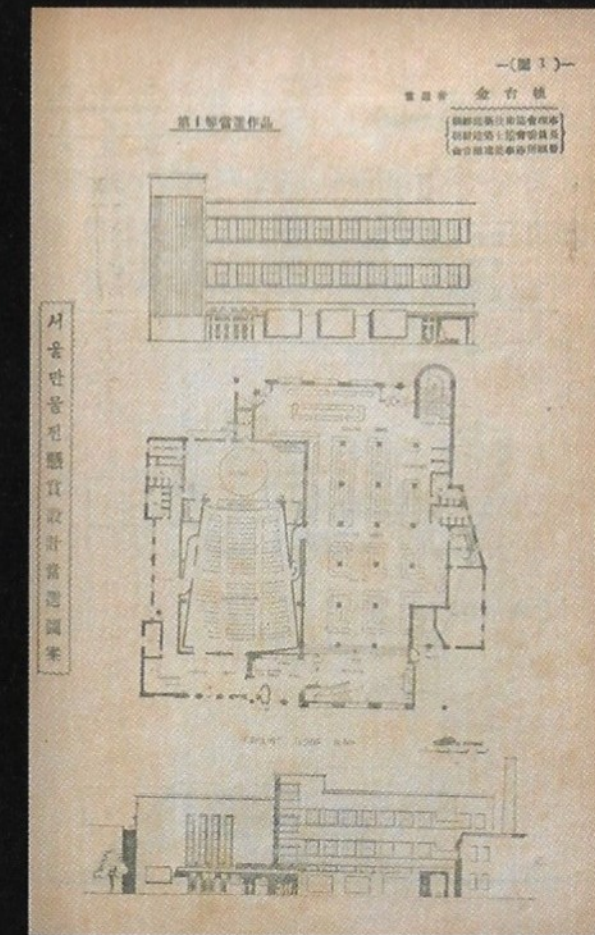
히라타(平田) 백화점, 1930년대 후반 혼마치(本町) 입구에서 본 모습. 그림에서 '은진의 거리(殷賑の街)'의 일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오영섭(오영섭건축설계사무소), 한옥 연립주택 투시도, 오공무소 광고 [출처: 《조선건축》, 1947.3.]



서울만물전 매장안내 광고, 《조선일보》(1946.6.15.)



서울만물전 현상설계 공모전(1947.9~10.) 당선작: a. 1등 김태식 안; b. 2등 강명구+박조유+한선유 안; c. 3등 1석 성낙천+이희태 안; 3등 2석 오영섭 안 [출처: 《조선건축》, 1947.12.]

